

- 본문 : 출애굽기 3장 1~12절

설교자 : 조경래 담임목사

- 제목 : “보고, 듣고, 보내시는 소망의 하나님”

· 본문 읽기 (7~12절)

7.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8.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9.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10.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11.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12.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 마음의 문을 열며

「나니아 연대기」의 작가이자 기독교 변증가인 C.S.루이스는 『고통의 문제』라는 책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 바 있습니다. “하나님은 쾌락 속에서 우리에게 속삭이시고, 양심 속에서 말씀하시며, 고통 속에서 소리치십니다. 고통은 귀먹은 세상을 불러 깨우는 하나님의 메가폰입니다.” C.S.루이스는 고통을 ‘세상을 불러 깨우는 하나님의 메가폰’이라고 했습니다. 고통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놓치고 있을 때 하나님께 다시 귀 기울이게 만드는 강력한 깨우침의 도구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고통의 순간들을 직면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때로는 고통 받는 다른 이들의 현실을 우리로 하여금 마주하게 하시고 그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도 하십니다. 최근 뉴스를 통해서 들었던 이야기 중에서 ‘어린이의 고통’과 관련하여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한 이야기가 있습니까? 또는 내 마음에 남아 있는 고통 받는 이웃의 이야기가 있다면 함께 나누어 봅시다.

· 말씀의 씨를 뿌리며

1.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자 모세를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출애굽기 3:1~12을 자신의 말로 정리해 보세요.
2. 모세가 하나님 뵈옵기를 두려워하며 얼굴을 가릴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7절)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3.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때 모세를 세우시고 보내시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반복적으로 말씀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8절, 10절, 12절)
4. 당신은 하나님께서 고통 받는 자들을 보고, 듣고,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시며, 결국에는 그들을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소명)과 약속의 말씀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 삶의 열매를 거두며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을 보고, 듣고, 아셨던 하나님은 지금 북한의 다음세대들이 겪는 고통 또한 보고, 듣고, 알고 계십니다. 북한 어린이들은 영양실조, 노동동원, 선전교육, 가족해체 등으로 매우 취약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북한 어린이들이 처한 문제적 상황 4가지」는 아주 일부분입니다. 이러한 고통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먼저 부르셔서 세우시고자 하기에, 그 말씀 앞에 응답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순간, 모세와 똑같은 질문으로 “내가 누구이기에 북한 어린이를 도울 수 있겠습니까?” 이런 마음이 든다면 그 질문 뒤에 계셔서 모든 것을 다 보고, 듣고,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진리를 붙들고, “나는 지금 무엇으로 하나님의 뜻에 동참할 수 있는가?”를 묵상하고 결단해야 할 것입니다. 북한 어린이 전인적 양육에 대한 비전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것이므로, 우리 교회가 두려움을 내려놓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지금 내가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순종의 한 걸음이 무엇일까?’ 적어보고 함께 나누어 봅시다.

· 말씀기도제목

1.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북한 어린이가 겪는 고통”도 다 아시기에 염려와 두려움보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2. 북한의 다음세대의 고통에 관심을 갖고 중보기도자로 기도하게 하시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구원역사가 시작되었음을 깨닫고 확신하게 하옵소서!
3. 송원교회가 「하나님의 뜻 묵상」 성숙시리즈를 통해 북한사역비전의 무력감과 두려움보다 “임마누엘의 약속”을 믿고 <살롬기도>에 헌신케 하옵소서!



· 「북한 어린이들이 처한 문제적 상황 4가지」**1. 영양과 생존의 위기**

유니세프(UNICEF)와 유엔세계식량계획(WFP)에 따르면, 북한의 5세 미만 아동 약 17%는 발육 지연을 겪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그 비율이 30%가 넘습니다. 양강도 등의 산간 지역 어린이의 영양 상태는 평양에 비해 3배 이상 열악하며, 보육원 조사에서는 어린이의 90% 이상이 만성 영양실조 상태였습니다. 농촌에서 태어난 어린이는 학업과 성장 보다 끼니 걱정과 생존이 우선일 수밖에 없으며, 북한은 이주의 자유가 없는 곳이기 때문에 그러한 환경을 벗어나기도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이 연약한 어린이들을 보시며 어떤 마음이실까요?

보육원의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2024년 통일부 발간 「북한인권백서」에 따르면 북한은 양육자가 없는 어린이는 시설에 모아 조직생활을 시키는데, 과도하게 엄격한 규율과 부실한 식사 등 열악한 생활환경 때문에 어린이들이 시설에서 달아나는 일이 종종 발생합니다. 한 북한이탈주민은 “애육원(보육원) 옆에 지나가면 뼈에 가죽만 있는 허약(영양실조) 상태의 어린이들을 볼 수 있었고, 김정은의 지시로 시설 개선이 이루어진 후에도 여전히 죽기 직전의 어린이들이 거리에 많았다”고 증언합니다. 2021년 탈북한 또 다른 북한이탈주민은 “북한당국이 애육원이나 육아원을 특별히 신경 쓰지만 식량 사정이 좋지 않았으며, 낮에는 꽃제비들이 밖에서 구걸을 하거나 음식을 찾다가 밤이면 돌아온다”고도 증언합니다.

2. 교육인가, 세뇌인가

북한 어린이의 삶에는 영양 문제 못지않은 깊은 고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편향된 교육으로 인해 철저한 사상 통제 속에서 자랄 수밖에 없는 고통입니다. 북한은 초등부터 고등 과정까지 12년 무상 의무교육 체계를 갖추고 있으나, 교육 내용은 철저히 정치사상 중심입니다. 김일성 일가의 혁명 역사, 주체사상, 반미 교육 등이 핵심을 이룹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학생들의 노동 동원입니다. 농번기마다 전국 초·중·고 학생들이 소위 ‘모내 기 전투’에 동원되고, 방과 후나 주말에도 도로 공사, 고철 수집, 토끼 가죽 과제 등 학교 주도 강제노동에 시달립니다.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면 벌금을 내야 하는데, 북한이탈주민의 증언에 따르면 과제를 채우지 못한 어린이가 가족의 식량을 팔아 벌금을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에 해당하는 소학교 학생이 육체적으로 감당하기 힘든 노동에 동원되었다는 증언도 있습니다. 아래는 2024년 서울시 주최의 <북한인권 서울포럼>에서 김일혁 연구원이 증언한 내용입니다.

“저는 부족한 북한의 인력난 때문에 학교에서 10살 무렵부터 자잘한 노동을 시작했고요. 한창 뛰어놀면서 공부해야 하는 어린 나이에 강제 노동을 했습니다.”

소학교 학생이 노동에 동원되면 학생 대신 어머니가 참여하기도 하고, 경제적 여력이 있는 가정에서는 돈을 지불해 면제를 받거나 대체 인력을 고용해 대신 내보내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아동노동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어린 소학교 학생들조차 노동에 동원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3. 보호의 사각지대

‘고난의 행군’이라 불리는 1990년대 대기근 이후 북한에는 수많은 고아와 거리의 어린이(소위 꽃제비)가 발생했습니다. 3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일부 지역에는 고아, 결식 아동, 탈북자 자녀들이 보호받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북한 당국에서는 거리를 배회하는 어린이를 발견할 시 해당 지역 인민위원회가 운영하는 구호소에 보내 보호자나 기관에 인계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 실제로 어느 정도가 애육원과 중등 학원에 수용되어 양육과 교육을 받는지는 명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2021년 탈북한 한 북한이탈주민의 증언에 따르면, 함경북도 원산에서 꽃제비를 목격했으며, 여름임에도 겨울 패딩을 입고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2023년 탈북한 또 다른 북한이탈 주민은 ‘꽃제비상무’를 통해 꽃제비를 단속하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전하면서도, 자신이 거주했던 지역에서는 오히려 꽃제비의 수가 증가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어린이들을 보고 계십니다. 여름철에도 겨울 패딩을 입고 거리를 떠도는 모습을, 아무도 돌보지 않는 고아들이 생존을 위해 감내해야 하는 고됨과 외로움을, 그리고 북한의 현실을 분명히 보고 계십니다.

4. 침묵당한 권리, 가려진 고통

북한의 어린이들은 국제아동권리협약에서 보장하는 생존권, 발달권, 보호권, 참여권의 대부분을 누리지 못합니다. 부모의 정치적 처벌(연좌제), 탈북, 강제송환으로 인해 가족 해체를 경험하거나, 외부 정보를 접했다는 이유로 처벌받기도 합니다. 학교 내 체벌도 여전히 존재하며, 성분(북한의 출신, 충성도 기반 계층 분류 제도)이 낮은 가정 출신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는 일도 빈번합니다.

정치범수용소에 수감된 어린이의 경우, 법적으로는 만 5세부터 노동이 가능하도록 규정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4세만 되어도 노동을 강요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부 수용소에서는 10세 미만 어린이가 성인과 거의 다를 바 없이 위험한 노동에 투입되고, 하루 9~15시간씩, 때로는 그 이상의 노동을 강요받는다고 합니다.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면 어린이라 할지라도 식량 배급 중단이나 구타와 같은 처벌이 가해진다고 전해집니다. 어린이까지 강제노동과 폭력에 노출되어 있다는 소식은 우리의 마음을 매우 아프게 합니다.